

옥수수 200\$ 시대의 사료와 양계산업

참 석 자

김 정 웅 (천호부화장 상무)
김 정 인 (신촌사료 상무)
남 대 현 (대한제당 부장)
사 회 : 노영한 편집국장

□ 일시 : 1980. 11. 18
□ 장소 : 본회 회의실

사 회 : 11월초에 대부분의 사료공장들이 배합사료 가격을 대폭 인상 하였습니다.

인상요인이나 그외 배경에 대하여는 본지 10월호에 자세히 설명 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의 사료가격 인상은 그 시기를 김장철 등으로 양계산물 소비가 년중 가장 적어 양축가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를 택하였고 인상폭이 너무커서 그 충격이 더욱 컸던것 같습니다.

사료 안정기금운용으로 인상시기 잘 선택해야

남대현 : 지난번 밀기울 가격이 58%인상되었고, 사료의 대중을 이루는 옥수수도 이번에 1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배합사료 가격 자율화 이후 사료가격이 자주 인상되다 보니 대폭 오르지 않는것은 오른것도 실감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게 된 것은 인상요인이 있는것은 그때 그때 현실화 하지 못하다가 쇼크 방법을 써서 한번에 대폭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료 안정 기금등을 이용하여 축산 불황기에 대폭인상하여 생산기반을 흔드는 것 보다는 성수기로 조절하므로써 그 충격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간 상당부문이 자유화 되었지만 앞으로 도 자유경쟁에 의해 가격과 품질을 조절하는 기능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정기금의 고정개념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일정 기준 보다는 일정율을 부과하여 서로 싸게 구입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곡물 구입에 대한 전경련의 건의문도 민간 상사가 곡물을 값싸게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정기금 운용에 생산자 대표 참여해야

김정웅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란은 3월초, 육제도 그 이후가 되어야 가격이 회복되어 채산이 맞기시작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금년에 도입한 옥수수중 최근 가장 비싸게 수입한 것도 175\$ 선이며 이것이 1월 20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185\$로 10\$이나 높게, 80일이나 앞당겨 인상한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월호에 설명된 안정기금 운용내용도 현금으로 77억이 있고 용자 89억 3천 2백만원이 있어 현찰이 없으면 차입해서도 쓸수있는데 시기적으로 산물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사료 kg당 약 3.90원의 생산비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남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안정기금 운용에는 생산자 대표가 참여 하여야 하며 안정기금을 부담하는 생산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기금 운용은 무의미합니다.

다행히 비수기를 맞아 생산조절을 하였기에 좀 나은 형편이지만 채란계의 경우 계란 1개를 생산하는데 백색계는 160g 갈색계는 170g 정도 드는데 사료 kg당 190W이면 $165g \times 190W = 31.35$ 로 계란 1개 생산하는데 사료비만 31.35원이 드는데 현재 대란시세가 32원 정도로 겨우 사료비 밖에 안 되어 육성상각비 인건비 그외 모든것이 적자상태로 과연 양계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양계장의 운영 자금중 사료비의 외형증가로 60%나 인상되어 더욱이 자금 압박이 심한 요즈음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양축가의 심각한 사정을 행정하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안정기금 사용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이 양축가들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남
대
현
〉



사 회 : 가격인상후 다시 내리는 공장도 있고 또 별로 올리지 않는등 공장마다의 큰 가격차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합사료는 품질과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

남대현 : 8.3조치이후 정부의 배합사료 가격정책의 경색으로 배합사료는 다 값이 같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만든것이 문제입니다.

품질도 일정한 것 가격도 일정한 것이라는 양축가들의 고착된 관념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산란계의 경우 산란계 한 마리가 하루 배합사료를 품질에 따라 95g 에서부터 130g 까지 먹어도 되는데 이는 약 37%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로일러 사료의 경우도 사료효율이 2.0~2.8까지 사이로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약 40%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95g 먹어도 되는사료와 130g 먹어야 되는 사료값이 같다는 것이 이상하며 사료효율 2.0인 사료와 2.8인 사료의 가격이 다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사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양축가들이 이를 주도해 나가야

〈김정웅〉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의 가격 차이는 지난번 강피류 가격 58%인상으로 양계사료의 경우 고효율 사료의 출현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 품질관리 담당자들에게 갑작스런 옥수수 가격 인상으로 혼란이 와서 시장 가격기능이 잠시 마비 된 것으로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배합사료의 품질은 다 비슷하다는 개념과 그래서 값싼 사료가 좋다는 생각을 양축가들이 불식하여 주기 바랍니다.

양축가들이 계속 값싼 사료만을 요구하면 경쟁이 심한 사료공장들은 할 수 없이 이에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율화 제도 살려 경제사료 만들어야

김정인 : 대두박 가격 인상을 예측하고 각 사료 공장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격의 기습인상과 재고 조사로 10월 30일분 부터 185 \$로 되므로 혼란이 왔고, 대두박 가격도 당초 20원정도 인상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50~60원 오를 것이라는 등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가격변동요인으로 가장 경제적 사료를 만들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료가격 자율화가 시작된지 이제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일부 양축가 중에는 자율화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율화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간 양계협회를 통하여도 가격자율화를 계속 주장하여 왔고 이제 4개월 밖에 안되어 각 사료공장이 그간 경직되어 새로운 자율화 제도에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최근들어 이에 적응하여 각 사료공장별로 가격차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가격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양축가들도 어느 사료로 가장 값싸게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양축가의 협조없이 는 현재와 같이 검토없이 양축가의 요구에 끌려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런 풍토에서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계속 서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록하는 양계 필요

김정웅 : 양축가의 배합사료 구매자세는 솔직히 말씀하여 품질 보다는 가격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계란 1개 부로일러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비가 얼마인가를 계산하여 가장 경제적인 사료를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록하는 양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81년 이후는 소득세도 내야되니 기록을 생활화 하여야 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효율 개념 빨리 도입해야

김정인 : 축산업 중에 배합사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이 양계산업인데 이제 양계업자는 경제적인 사료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제사료 하니까 언뜻 이해가 안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들면 경기도 모 양계업자는 사료 1포로 계란 몇개를 생산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의 상승외에도 가장 중요한 단백질 원료인 어분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어분 가격이 kg당 510원 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양제 값입니다.

이것도 최근 페루의 어분입찰에 서독이 전량 구매 함으로써 서독 일본등이 사재기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오를때 하루빨리 사료효율 개념을 도입하여 부족한 사료자원을 아끼지 않으면 남는것은 도산 뿐입니다.

사료 공장이나 양축가가 적자를 본다고 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리도 없고, 사료공장도 기업인 만큼 계속 희생하며 한국 축산을 이끌어 나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소비는 줄고 생산능력은 확장되어 사료 공장들도 금년에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져 명년초에는 도산위기라는 말이 증명 될 것 같습니다.

사료 자원의 품귀와 가격상승이 예상되므로 무리한 확장을 삼가하고 효율적인 사료를 생산해야 될 것입니다.

남대현: 최근의 사료공장 형편은 물량은 늘지않고 생산능력은 늘어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외상 판매가 늘어 자금압박이 심각해지고 명년 3월에서 6월까지 옥수수 대금 결제가 약 380억 돌아오게 되면 정말 이제까지의 악순환이 막다른 골목에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불황은 자업자득

김정인: 사료공장의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누가 도와 줄리도 없고 도와 줄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대비해야 하는데, 생산시설을 너무 늘려 능력 밖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흔하게 사료를

〈김정인〉



만들어 양축가들은 규모를 확대하게 되고 그 결과는 불황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료 업체는 세계 최신타 사료공장파 최구형 사료공장이 공존하고 있어 원가 계산에서 부터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의 경쟁은 양축가에 유리

남대현: 사료공장의 건전한 경쟁은 양축가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일시적으로 파잉생산이 될지 모르나 완전 자율경쟁되면 바람직한 결과로 될 것입니다.

200 \$ (옥수수) 시대의 양계산업

사 회: 어려운 얘기들만 하여 안됐습니다만 옥수수 가격이 이제 구입하는 것이 200 \$ 선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농수산부나 축산진흥회 사료협회 곡물오과상들이 계속 대책을 강구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안은 없을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냐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환우 장려는 극히 위험

남대현: 최근 모 축산잡지에 환우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또 환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경기가 정상적 일때 환우를 실시하여 양축가의 소득 극대화를 위하는 것은 좋으나, 요즘은 빨리 노제를 도태하여 생산조절이 필요한데 환우를 장려한다는 것은 불황을 오래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정웅 : 현재 환우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환우로 인해 불황이 장기화 되어 나도 못살고 남도 못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같이 사료 값이 계속오르고 있는데 환우에 대한 경제성 검토도 없이 우선 환우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료가격 내릴수 있는 여건 아직도 많다.

사 회 :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시행 할 수 있는 사료 생산비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세되어야

김정인 : 현재 배합사료는 부가 가치세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옥수수 소맥피등은 의제 면제를 받고 있지만 단미사료와 배합사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될 경우 지금보다 약 3-4%의 양축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원료를 제외하고 배합사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할 경우는 1%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양축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면 10%의 사료값이 싸지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이는 의제 매입제에 대한 홍보가 잘못되어진 때문인것 같습니다.

원료구매 방법 개선으로 사료값 싸질수 있다

남대현 : 농산물의 경우 무기화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 공개입찰 방법은 결코 값싸게 원료를 구매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곡물 수입국들이 현재는 거의 공개 경쟁입찰 방법을 안쓰고 있으며, 실수요자도 구입

토록 개방할 경우 더 싸게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국내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장기 차관을 사용하는 방법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 외에 다른 사료원료의 수입도 개방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의제면제 폭을 확대하여 모든 원료를 값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김정인 :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변 효과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료 수입국과 원료 다변화를 위해 계속시키고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료가격이 오를때만 잠깐 말이나오다그쳐서 안타깝습니다.

또 배합사료가 알게 모르게 유통비용이 많아나가 문제되고 있는데 유통비용을 최대한 줄이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배합사료 유통의 직간접 비용 절약해야

남대현 : 대형공장의 관리비도 문제가 되는데 사료 ton당 관리비로 계산하면 오히려 더 적을수가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업체에 나가는 비용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발달로 인정과세가 없어지면 대리점으로 양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 발전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

김정인 : 그간 배합사료 품질의 평등화 정책으로 사료공장의 기술자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깊은 개입으로 발전 속도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사료공장은 물론 양축가도 함께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 그곳에 가보니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원료도 옥



〈 노 영 한 〉

수수는 물론 수수 소맥 보리 비스켓 가루등 원료 다변화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 낙화생박을 인도 호주 캐나다 남미에서 바로 수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옥수수 대두박등으로 원료가 단순화 되고 있는데 이는 풍부한 자원 때문인것 같습니다.

우리 실직 맞는 사양표준도 필요하고 원료 다변화도 더욱 경제적 사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80%정도는 개방되었으나 원료다변화 연구가 안되면 축산물 단가만 높아질 뿐입니다. 양축가도 경제적 사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들어 산란계 사료의 경우 조단백질 함량이 17%에서 14%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후 닭의 품종 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마치 정답이 한개라는 생각은 잘못이며 아미노산 균형이 잘 잡힌 저단백 사료가 좋을수도 있는데 15%의 CP함량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 사료 공장들이 사료 kg 3-4W을 낭비하고 이것이 양축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첨가제 낭비도 줄이자

김정웅 : 배합사료 원료에 들어있는 비타민 등 영양제가 무시된 채 현재 첨가제 규정 때문에 낭비가 많은데 첨가제도 주문생산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료값을 줄일 수 있어야 되겠

습니다.

사료공장 기술자들의 우리와 자원 형편이 비슷한 유럽등 선진지 시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펠릿사료로 생산비 절약가능하다

김정인 :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펠릿사료를 들 수 있는데 현재 가루사료보다 3%정도 값이 비싼데 육계의 경우 10%정도 사료효율이 개선되고 있어 자금회전을 높이고 수익이 높아져 발전된 가공 방법입니다.

산란계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종계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살모넬라 등 병원균의 오염을 방지함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육계사료와 돼지 사료는 펠릿화 하면 큰 사료 절약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부로이러는 95%, 산란계는 5%가 펠릿사료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장비도 절감할 수 있다.

남대현 : 현재 벌크수송의 경우 부가가치세 까지 포함하면 사료 kg당 약 4원 40전 정도의 포장비가 절감 되는데 이에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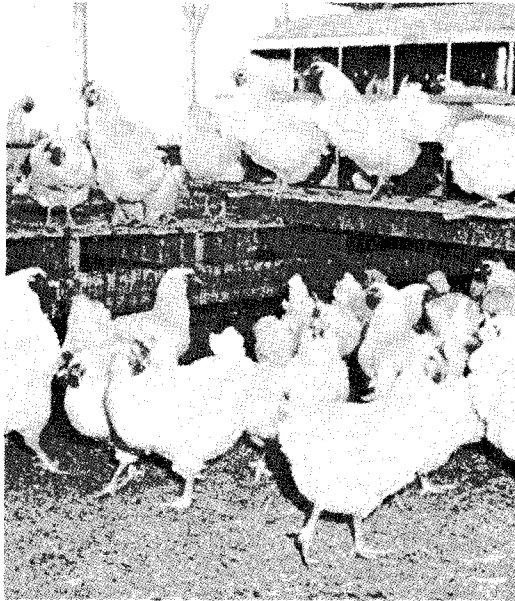
사료운반차가 들어가도록 양계장이 설계 되어야 하고 저장조 설치등 경비가 드는데 이것도 자원절약 면에서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주든지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양축가가 사료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은 더 큰 문제이다

사 회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된 내용들이 닭고기 계란을 싸게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것은 반영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에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정부도 이제는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 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하고 축산물 가격도 점차 자율화 하여서 모든것을 순리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81년초에 또다시 사료가격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값싼 사료가 아닌 경제적인 사료를 양축가들이 선택 함으로써 사료공장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양축가가 주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오늘 말씀은 많은 양축가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줄로 믿습니다.

양축가가 스스로 사료선택권을 포기하고 값싼 사료만을 찾을때 사료공장에게만 경제적인 사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원 가축 약품

수입품 신발매!
C. C. R. D 치료제
토사비아 (Tosaviar)

※ 항생제 4종+진해·거담제+V. A 10,000,00
(급·만성 복합호흡기증에 탁월한 효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
(청림예식장 1층)

☎ (수원 2-2583)

대표 : 박 은 권

- *축산인의 사랑방*
- *가축질병·사양관리상담*
- *가 축 약 품*
- *축 산 기 구*
- *기타 축산관계일체*

